



LA한국교육원, 한인 동포 교육 허브로 자리매김...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제2의 도약 준비 중

- 뿌리교육 및 성인평생교육 수강생, 최근 3년간 2배 이상 증가
- 5세 유아부터 90세 어르신까지 매주 500명 이상 강의실 찾아
- 동포사회 후원과 한국 정부 지원이 결합한 성공적 교육 모델로 안착

#1. 미국 북서부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6학년 한지 하웰스 군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이면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에 참여한다. 한인 2세 부모를 둔 한지 군은 어릴적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한글학교조차 차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환경 탓에 배움의 기회를 쉽게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수소문 끝에 2022년 LA한국교육원의 뿌리교육 온라인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한글 기초반부터 차근차근 학습을 시작했다. 올해로 5년째 꾸준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지 군은 이제 일상적인 한국어를 읽고 쓰는 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2.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LA한국교육원 서예 강의실에서는 특별한 모녀가 나란히 붓을 들고 앉는다. 80대 한 모씨와 그의 딸 50대 웬디 씨는 서예의 매력에 빠져 매주 빠짐없이 교육원을 찾고 있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화선지 위에 먹향을 담아 한 획 한 획 정성스럽게 글씨를 써 내려간다. 여기에 웬디 씨의 중학생 딸까지 매주 토요일 뿌리교육의 인기 강좌인 가야금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할머니와 엄마, 딸까지 삼대가 함께 교육원을 통해 한국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진 셈이다. 이들은 “세대를 잇는 특별한 경험을 함께할 수 있어 뜻깊다”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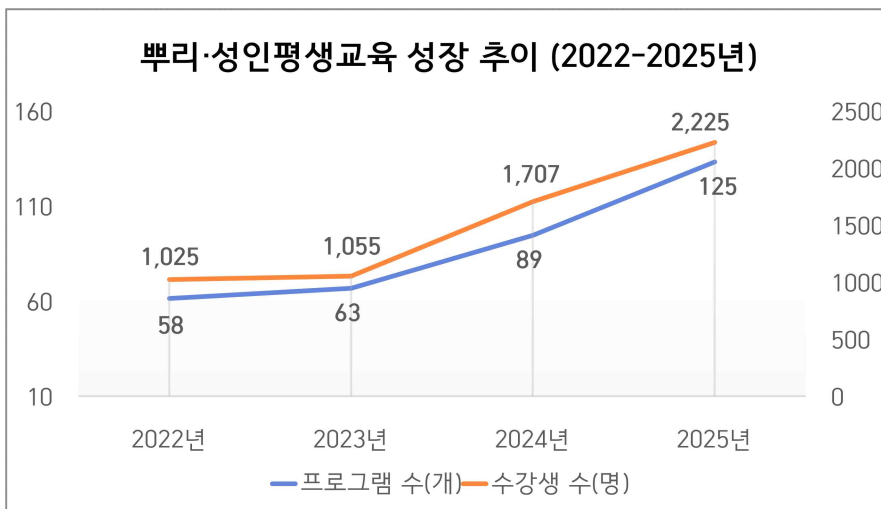
#3.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LA한국교육원 우리민요노래 강의실에는 유독 눈에 띄는 두 명의 20대 수강생이 있다. 한인 2세 이자벨라 씨와 한국문화에 깊은 관심이 있다는 미국인 아바 씨가 그 주인공이다. 또래 친구들이 학교나 직장에 있을 시간, 이들은 매주 빠짐없이 강의실을 찾아 아리랑을 비롯한 경기민요를 배우며 한국 전통음악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고 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교실을 나서는 두 사람은 “한국어와 한국음악은 들을수록 신기하고 아름다운 매력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LA한국교육원(원장 이병승)이 명실상부한 미주 한인동포 사회의 핵심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대와 연령을 아우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LA한국교육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미주 한인사회의 교육 생태계를 이끌어가는 핵심 플랫폼이자 교육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다.

1980년 한국 정부가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진흥을 위해 설립한 LA한국교육원은 동포사회의 성금 124만 달러와 한국 정부 지원금 310만 달러를 바탕으로 2002년 현재의 교육원 건물로 이전했다. 이후 유·청소년은 물론 성인 대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동포사회 대표 교육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LA한국교육원은 동포 유·청소년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키울 수 있도록 봄·가을 학기에는 각각 15주 과정, 여름학기에는 4주 집중과정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또한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연중 쉽 없이 다양한 교양 및 한국문화 강좌를 운영하며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모든 강좌에는 분야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 강사진이 참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학사 운영과 철저한 강사 평가 시스템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교육 품질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LA한국교육원의 교육 프로그램은 최근 3년 사이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 강의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2022년에는 총 58개 강좌에 1,025명의 수강생이 참여했으나, 2025년에는 125개 강좌에 총 2,225명의 수강생이 등록하며 프로그램 규모와 참여 인원이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매 학기 수강신청이 시작되면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온라인 접수 사이트가 마비되고, 인기 강좌의 경우 현장 접수를 위해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지는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LA한국교육원은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혜택을 더 많은 한인 동포들이 누릴 수 있도록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등지의 지역사회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수)부터 5월 6일(수)까지 한 달간 OC한미시니어센터와 공동 주최로 진행한 한국문화 특별강좌에는 긴 대기자 명단이 형성될 만큼 높은 관심 속에서 오렌지카운티 동포 80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산타바바라와 네바다주 리노 등에서도 한국문화 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수 백명의 지역 주민과 동포들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다양한 한인동포 단체 및 교육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24년부터 3년째 LA지역 한인 입양인 단체인 AKA-LA(Association of Korean Adoptees LA)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원과 협약을 맺은 남가주 및 네바다주 초·중·고교 가운데 매년 20~30개교, 1천 여 명의 학생들이 교육원을 방문해 한국문화 필드트립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이병승 교육원장은 “1990년대 초반, 한인 2·3세대를 위한 종합교육관의 필요성에 공감한 이민 1세대들의 성금 모금과 자발적인 봉사, 그리고 한국 정부의 지원이 결합되어 오늘날과 같은 LA한국교육원의 성공 모델이 만들어졌다” 며 “현재의 한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한인 사회를 넘어 다양한 인종의 지역 주민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붙임 사진 8부. 끝.

※ 관련문의 : LA한국교육원 (680 Wilshire Place #200, LA, CA 90005)
(213-386-3112) Homepage: www.kecla.org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담당자	이상범 부원장 (213-386-3112)
	담당자	

<사진 1> 2026년 5월 9일(토) 뿌리교육 종강을 맞아 가야금반 학생들이 학부모들 앞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아름다운 연주를 펼쳤다



<사진 2> 2026년 5월 9일(토) 뿌리교육 종강을 맞아 태권도반 학생들은 격파 시범과 태권도 댄스 등을 선보이며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사진 3> 2026년 5월 5일(화) 성인평생교육 난타·사물놀이반은 LA한국교육원 정실관에서 중강 발표회를 열고 ‘앞은 반 설장구’ 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사진 4> 2026년 4월 15일(수) OC한미시니어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문화 특강 “자개 갓 키링 만들기”에는 오렌지카운티 동포 20여 명이 참여해 한국전통 자개공예의 매력을 체험하였다



<사진 5> 2026년 5월 4일(월) LA시니어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한 인문학 특강 “솔로 빛은 예술: 조선을 뒤흔든 3대 기인 화가”에는 한인동포 60여 명이 참석해 조선 시대 기인 화가들의 삶과 예술 세계를 함께 조명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사진 6> 2026년 5월 16일(토) 진행된 「한인 입양인 특강」에는 참가자 25명이 K-Pop 댄스 배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음악과 춤을 통해 한국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7> 2026년 5월 16일(토) 진행된 「한인 입양인 특강」에서는 참가자 25명이 한지공예 수업에 참여해 한국 전통의 멋과 정취를 담은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8> 2026년 5월 2일(토) 베이커스필드 우리한글학교에서 진행된 「찾아가는 뿌리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전통 노리개 만들기, 오방색 복주머니 종이접기 등을 체험하며 한국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을 보냈다

